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3.12.(제6호)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및 피해 실태*

나성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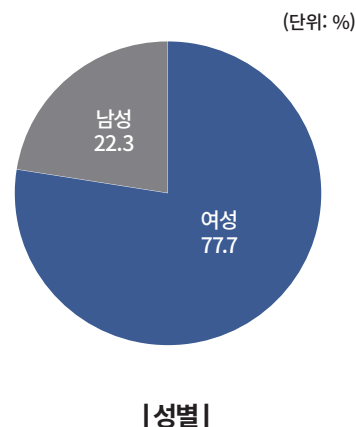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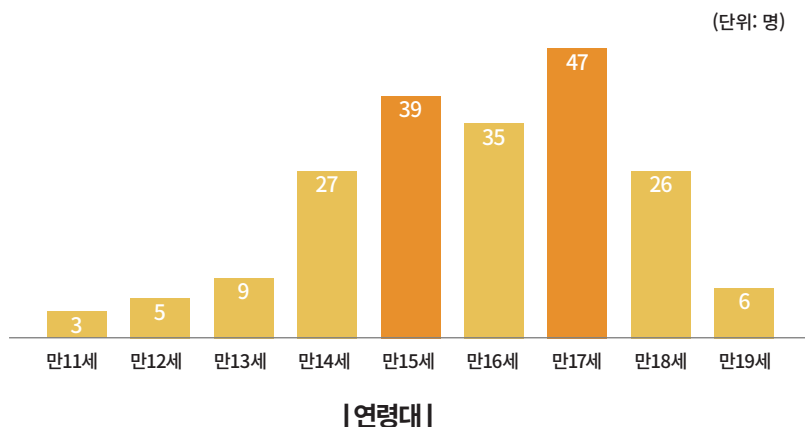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정책대응 강화방안 연구(2022)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2021)

서울시는 2022년에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가 위기집대여성 지원사업을 지속해 온 정책적 성과에 기반을 두며, 범죄 수법의 변이와 피해 대상의 성별·연령별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달라진 법·제도 및 온라인 환경에서 변화하는 아동·청소년 피해 양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및 수도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강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 ▶ 설문조사 대상 : 서울시 및 수도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만 11 세 이상 19 세 미만 아동·청소년 19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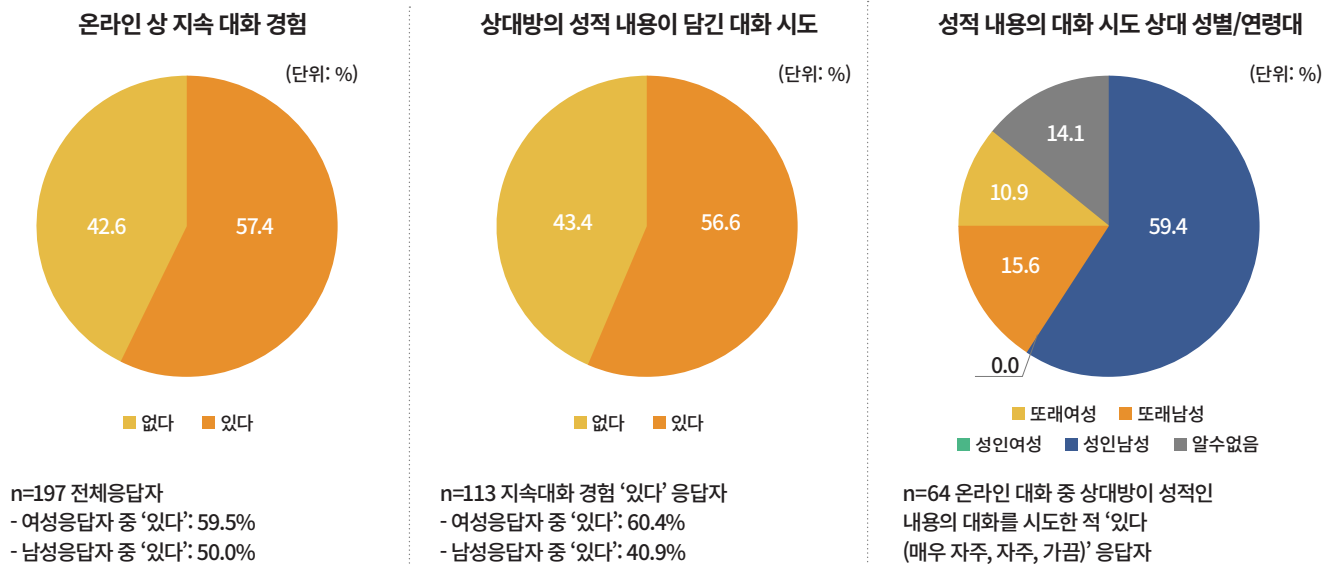
- ▶ 면접조사 대상 : 피해자 18 명, 기관 종사자 20 명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3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정책과제」(김홍미리·김보화·박진솔, 2023)의 연구결과를 일부 요약한 자료임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실태

○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유인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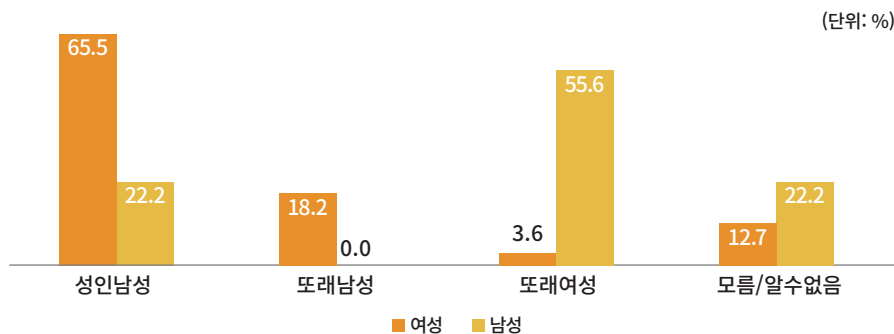
- 온라인플랫폼은 성착취 유인 집단이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취득하는 장소로 확인됨. 성착취 유인 집단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용해 착취 대상을 물색·선택하며, 이러한 유인을 제어하는 게이트키퍼는 온라인 공간에 사실상 부재함.
- 성착취 유인 집단은 1차 타겟이 된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일대일 대화 시도)을 통해 성착취 유인을 본격화함. 아동·청소년의 57.4%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었고, 이 중에서 56.6%는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을 담은 대화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여성 60.4%, 남성 40.9%).



[그림 1] SNS, 채팅앱,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 의한 성적 접근 경험

○ 온라인에서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성별 차이

-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시도하는 상대방은 성인 남성 비중이 높고(65.5%), 남성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 여성 비중이 높음(55.6%). 한편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시도한 상대방이 성인 여성이었다는 응답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나오지 않았음



[그림 2] 온라인에서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성별·연령대별 차이

○ 성착취 유인 단계 중 관계형성 단계 주목 필요

- 성착취 유인 경험을 묻는 1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 관계형성 단계 2) 성적접근 단계 3) 협박 단계의 세 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봄. 관계형성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으나, 성적 접근과 협박 단계에서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온라인 성착취 유인단계별 경험 비교: 성별

구분		관계형성(친밀감 형성)		성적접근		협박	
		평균값	F/t	평균값	F/t	평균값	F/t
성별	여성	2.03	1.049	1.98	4.742***	0.34	1.946**
	남성	1.75		0.66		0.14	

N = 197 *p<.05, **p<.01, ***p<.001

- 원가정의 경제적 상황, 학교재학 여부는 관계형성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음. 다만 탈가정 경험은 관계형성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성적 접근 단계에서는 학교재학 여부와 탈가정 경험, 가정 내 경제적 상황,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협박 단계에서는 학교재학 여부와 탈가정 경험 여부에 따라 피해 경험에 차이를 보임.
-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원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관계형성, 성적 접근, 협박 단계에서 모두 취약성을 보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됨.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탈학교, 탈가정 경험이 있을 경우 성착취 유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2 온라인 성착취 유인단계별 경험 비교: 원가정 경제상황 / 학교재학 여부 / 탈가정 경험 여부

구분		관계형성(친밀감 형성)		성적접근		협박	
		평균값	F/t	평균값	F/t	평균값	F/t
원가정 경제적 상황	상	1.65	1.696	0.50	2.472*	0.15	1.032
	중상	1.53		1.29		0.26	
	중	1.96		1.83		0.24	
	중하	2.33		2.03		0.38	
	하	2.30		2.25		0.55	
학교재학 여부	학생	1.90	-1.180	1.39	-3.699***	0.21	-2.231*
	비학생	2.21		2.74		0.58	
탈가정 경험	없음	1.70	-3.078**	1.14	-4.373***	0.12	-3.832***
	있음	2.38		2.55		0.58	

N = 197 *p<.05, **p<.01, ***p<.001

- 이러한 결과는 ‘관계형성’에서 ‘성적 접근’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학교에서의 예방적 관심과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함. 성적 접근 및 협박 단계에서는 탈학교 상태의 피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재학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관계형성 단계의 개입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실태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율 및 피해 이유

-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율은 22.8%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첩 피해 중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빌미로 신체 사진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48.4%로 나타남.

성착취 피해율(중복)

질문 유형	명	퍼센트
(1) 경험한 '성매매' 유형 단순 질문 ¹⁾	45	22.8%
(2) 온라인 상 유인을 통한 오프라인 성착취 인입	44	22.3%
(3) 온·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접촉 있는/신체접촉 없는 성착취 요구·협박 경험 ²⁾	47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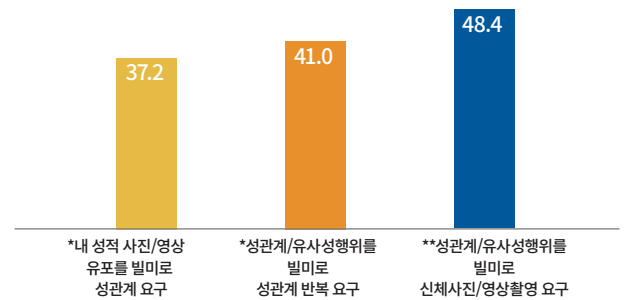
N=197

주: 1)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에서의 응답자 피해 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성착취 피해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을 구분함(교차분석에 사용된 '성착취 경험' 변수)

2) 온라인에서의 성착취 요구·협박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적 '있다' 18명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요구/협박 중첩피해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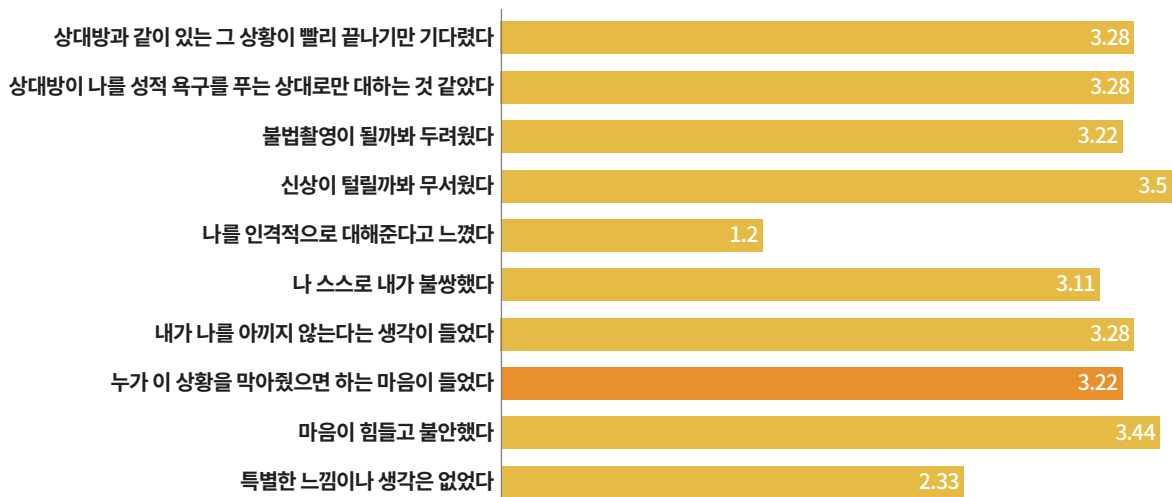
*N=43 성관계/유사성행위 요구협박 경험 '있다' 응답자

**N=31 성적사진/영상촬영 요구협박 경험 '있다' 응답자

| 그림 3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실태

- 피해아동·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불안과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성적 대상이 된 부정적 느낌과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느낌을 보고함.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라도 이 상황을 막아주기를 바란다'(3.22점/4점 만점)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단위: 점/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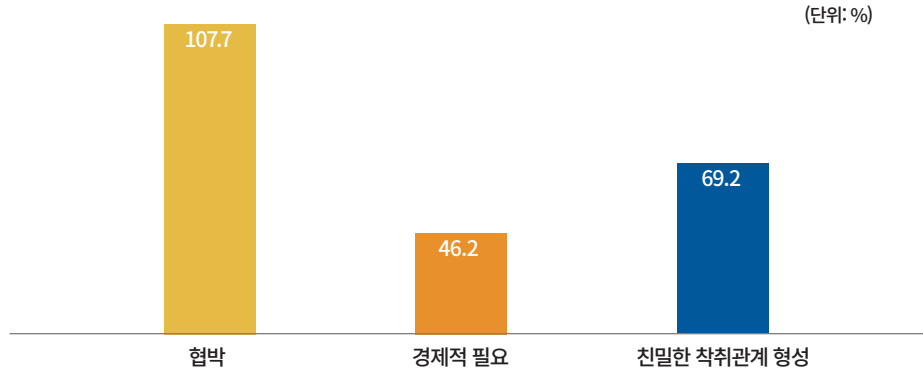


n=18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적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실제로 만난 적 '있다' 응답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 그림 4 | 성착취 피해 당시 생각과 느낌(4점 척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및 피해 실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만난 이유는 협박(107.7%)이 가장 높고, 친밀한 착취관계 형성(69.2%), 경제적 필요(46.2%) 순으로 나타남(응답 유형화 결과). 즉 성착취 구조에 최초로 인입되는 중심 원인이 경제적·정서적 요인이라면, 피해를 지속시키는 요인은 ‘협박’과 ‘친밀한-착취관계 형성’임.



n=18(29)

- 주: 1) **협박**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신상을 주변에 알릴까봐,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고 나를 협박해서, 친구나 친한 언니, 오빠가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해서
 2) **경제적 필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해서,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이 되고 싶어서
 3) **친밀한 착취 관계 형성** 나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아서, 사귀는 사이가 되어서

[그림 5] 계속 연락하거나 만난 이유(유형화 결과)

○ 성착취 피해 인지의 어려움 및 대응 실태¹⁾

- 가해자는 ‘부탁’으로 위장하여 아동·청소년과 자신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처럼 보이도록 하고, 거래가 동등한 것처럼 위장함. 이로 인해 피해아동·청소년은 자신에게 미칠 위험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게 되기 쉬움.
- 면접조사 결과, 피해 대응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응답으로는 대응 정보 부족, 생애 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에서의 좌절 경험 등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음.
- 피해아동·청소년은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공방 프로그램, 교육 등 지원기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앞서 대응 정보 부족이 피해 대응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기관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아동·청소년 대응 강화 모델

-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1)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2) 상시적 (재)피해 예방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1) 면접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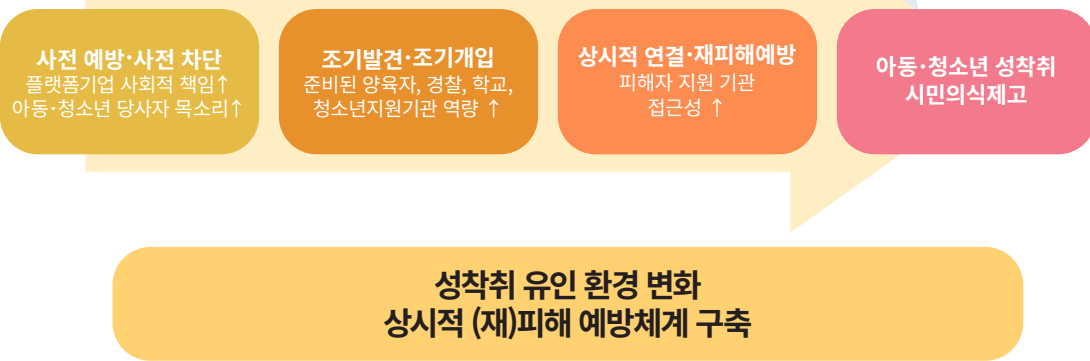


그림 6 |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강화 정책모델

○ 정책과제

- 정책과제 설계 시 정책의 집행 장소와 대상군을 고려하고 단계별 안전망 수요를 반영하였음. 먼저, 아동·성착취 유인이 온라인에서 집중 발생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안전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함.
- 또한 범죄행위가 온·오프라인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과 주변 정보 및 자원으로부터 차단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심화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시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의 책임을 갖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인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과제
성착취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 : 게이트키퍼 전략	(신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신규) 아동·청소년 당사자 역할 부여: 청소년 반(反)성착취 캠페인 실시 및 심대 성지식 플랫폼 제작 (신규) 성착취 유인 차단 AI 개발 및 보급
조기발견·조기개입을 위한 토대 구축 : 양육자·경찰·학교·청소년 유관기관의 성착취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신규) 학교 내 교사 및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대상 성착취 피해 지원자 프로그램 운영 (신규) 양육자 교육 및 상담 창구 운영 (신규) 청소년 상담·지원기관 성상담 전문성 강화 (지속·강화) 전문상담원 동석제도 활용 적극 안내 (지속·강화) 오프라인 아웃리치 확대 운영
상시적 연결망 확보 및 (재)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신규) 위기 및 피해아동·청소년 쉼·놀이공간 제공 (신규) 위기·피해아동 청소년 대응을 위한 영상물 제작·배포 (신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온라인 상담 플랫폼 강화 (지속·강화) 위기 아동·청소년 의료 지원 확대·강화 (지속·강화) 청소년 인턴십 운영/자립 프로그램 확대 (지속·강화) 청소년 일시·단기보호시설 입소기준 완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신규) 플랫폼 기업·서울시 간 상시적 성착취 예방 캠페인 실시 (신규) 경찰청 및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체계 강화 (신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및 조례 개정 (지속·강화) 온라인 성착취 유인 시민 모니터링 확대